

“해외 첫 5·18 기념일 지정 뿌듯...세계로 뻗는 5·18 되길”

미국 캘리포니아주 5·18 공식 기념일 제정 주역 최석호 의원 인터뷰

“5·18 왜곡 바로잡고 싶어 발의”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데이비드 김 “내년 7개 주·영국 등 유럽서도 기념일 추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5·18민주화운동의 날’이 공식 지정(광주일보 2022년 8월 2일자 6면)됐다. 5·18민주화운동이 해외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석호 의원

최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켜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시하면서도 “심의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제지없이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이 올라오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것은 캘리포니아주 하원의 모든 의원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9일 새벽(캘리포니아 현지 시각 8월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결의문’과 매년 5월 18일을 ‘5·18민주화운동의 날’로 제정하는 의안인 ‘HR120’이 참석 의원 67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5·18기념재단, 광주시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국외 첫 5·18 기념일 지정 등을 담은 결의안 채택 과정을 지켜봤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석호(공화당) 의원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 준비위원회’ 관계자 등 200여명은 의회 인근 호텔에서 올 1월부터 준비해온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기쁨을 만끽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5·18 기념일 지정에 앞장선 최석호(78) 의원과 데이비드(David) 김(56) 준비위 사무총장은 결의안 통과 직후 광주일보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해외에서 처음으로 5·18 기념일을 지정한 곳이 미국 캘리포니아라는 점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전 세계인의 5·18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최 의원과 함께 교민사회 여론 조성을 통해 결의안 채택을 이끈 김 사무총장은 5·18 당시 광주 살레시오고 학생으로 ‘소총을 들고 계엄군과 맞서 싸운 시민군’이라서 감격이 더했다고 한다.

이러 자 자신이 5·18기념일 제정에 앞장선 이유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5·18민주화운동을 공식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고 유네스코도 5·18기록물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는데도 5·18에 대한 왜곡과 편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국가로 전 세계인이 꼽는 미국에서 5·18을 기념일로 지정해 이러한 왜곡과 편향이 계속되는 것을 바로 잡고 싶었다”고 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나주시 다시면 출신의 최 의원은 광주고를 졸업한 뒤 1968년 도미했다. 5·18 당시 미국에 있었지만 신문·방송을 통해 광주 소식을 접하며 마음 아파했다는 점도 털어냈다.

최 의원은 이날 5·18 결의안 통과라는 결과물은 사실상 캘리포니아에서 매년 5·18을 기념하는 동포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교민사회에 공을 돌렸다.



9일 미국 캘리포니아 웨리튼호텔 메그놀리아홀에서 열린 캘리포니아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 기념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데이비드 김 사무총장 역시 광주일보 인터뷰에서 “오늘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날”이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1980년 5월 당시 살레시오고 1학년으로 5·18을 직접 겪었던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학생 신분이었지만 총을 들고 시내를 누비며, 전두환 일당의 무자비한 진압을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울분을 느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금남로에선 내 옆에 있던 시민이 총에 맞기도 했고, 상무관에는 시체들이 넘쳐났다”고 기억했다. 김 사무총장은 결의안 통과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들의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의

원들도 5·18의 역사와 의미,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결의안 채택에 동의한 것이라는 의미다.

김 사무총장은 “본회의에서 결의안 관련 주요 발언에 나선 켄 쿨리(KEN COOLEY·민주당) 의원은 한국어로 치면 법사위원장”이라며 “켄 쿨리 의원은 ‘5·18 푸른 눈의 증인’이라는 책을 다 읽고 5·18의 역사와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여야 가리지 않고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통과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5·18 푸른 눈의 증인’이라는 책은 1980년 5월, 광주와 나주 등을 오가며 미국 평화봉사단 소속 폴

코트라이트(64·Paul Courtright)씨가 자신이 목격한 5·18을 다룬 책으로 2020년 한국과 미국에서 발간됐다.

김 사무총장은 “캘리포니아주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뉴욕·워싱턴·애리조나·조지아주·일리노이주·텍사스주·유타주 등 7개 주와 영국과 유럽에서도 공식 5·18기념일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이미 동남아에서는 5·18이 민주주의의 교과서이고 북미와 유럽까지 퍼지길 5·18은 세계화를 맞는 것이다”고 웃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환경연합, 30년 더부살이 ‘끝’

11월 본사무소 겸 ‘환경센터’ 입주...“생태·환경·기후 운동 이어갈 것”

광주환경운동연합이 30여 년간의 더부살이를 끝내고 올 11월 본사무소를 겸한 환경센터에 입주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9일 “오늘 11월 광주시 동구 계림동 푸른길에 인근에 광주환경연합 본사무소를 겸하는 환경센터의 문을 연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6월 부지·건물 매입 계약을 마쳤고 10월까지 리모델링을 거쳐 11월 개소식을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단체 본사무소 및 환경센터가 들어설 곳은 부지 116㎡ 규모에 지상 2층(1층 69.3㎡, 2층 69.3㎡) 짜리 건물이다.

옥상에는 5kW 용량의 태양광발전기 2기를 설치하고 마당에는 빗물정원을 조성된다.

기존의 적색벽돌 위에는 백색 열 차단 페인트를 칠하고 1층에는 회원과 시민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실과 스터디 카페·북카페 등이 1층에 들어서고 2층에는

회의, 워크숍, 강의 공간이 꾸며진다.

환경센터 조성 계획은 2019년 광주환경운동연합 30주년 행사 과정에서 임원과 회원들에게서 제시됐다. 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안정적인 사무소가 필요하고, 환경기후생태 교육과 실습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단체 안팎에서 형성됐다.

시민들이 쉽게 오가면서 제로에너지 빌딩·에너지 자립·탄소제로 건물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환경센터를 통해 보여 줄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1989년 창립 이후 5차례 사무실을 이전하며 단체를 꾸려왔다. 회원들 제안을 계기로 후원금을 모아 올 가을 계림동에 드디어 뿌리를 내리게 됐다”며 “환경센터 개소를 계기로 회원과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 생태·환경·기후 운동을 활기차게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남구, 노후 건축물 무상 안전 점검

신청 접수 후 내달부터

광주시 남구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건축된 지 40년이 지나 노후한 200㎡ 미만 소규모 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건축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무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과 인접 공사현장으로 인한 피해 건축물, 철거 건축물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 점검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점검은 구청 및 안전점검단의 직권에 의한 현장 점검과 신청에 의한 현장 점검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안전등급 5단계 중 ‘미흡’ 또는 ‘불량’ 등급에 속할 경우 2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점검 기준에 맞는 남구 지역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7500여개 등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600개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남구는 내다봤다.

남구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뒤 다음 달부터 점검 지원에 나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공해 건축물 유지 관리와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불시의 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북구 오치쌍굴다리 하수도 공사로 13일까지 통제

하수도 공사로 광주 북구 오치 쌍굴다리 차량 운행이 5일간 전면 통제된다.

광주시 북구청은 13일 오후 5시 30분까지 호남고속도로 아래 오치 쌍굴다리 약 70m 구간의 차량운행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북구는 이번 하수도 공사를 통해 쌍굴다리 주변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제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다. 공사 기간 차량은 쌍굴다리 500여m의 문흥굴다리로 우회 운행해야 한다.

북구청 관계자는 “공사 현장의 통제시간대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 시설을 설치해 차량 소통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8·15 광복절 기념 제7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

2022년 8월 14일(일) 오전 8시 출발

접수 및 문의 ☎(061)375-1201 <http://marathonworld.kr/>

장 소 | 너릿재 옛길(화순~광주 동구 구간 4.2195km)

출 발 | 너릿재 옛길 주차장(화순 소아르 갤러리 앞)

코 스 | 소아르 갤러리 ~ 너릿재 정상 ~ 너릿재 옛길 주차장(광주 동구)

종 목 | 풀(5회왕복), 25km(3회왕복), 8.5km(1회왕복), 25km릴레이(3인 1조)

참가인원 | 선착순 400명

주최 광주일보사

주관 화순군체육회, 마라톤세상

후원 화순군 광주광역시동구 화순군의회